



광주 광산구가 지역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 사업지로 선택한 평동호수(지정 저수지) 전경.

광산구 평동호수, '힐링 명소'로 가꾼다

누리길 조성 사업 추진 관광자원화 시민여가·휴식, 특색관광코스 활용

광주 광산구가 평동호수(지정 저수지)를 지역 대표 '힐링 명소'로 조성한다. 15일 광산구에 따르면 '평동호수 1번지' 평동호수 관광 자원화를 위한 시작으로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평동호수는 1926년에 조성해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 대표 저수지다. 면적은 1만5418㎡로, 수해면적은 413ha에 달한다. 풍암저수지, 운전저수지와 달리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아직까지 시민을 위한 여가·휴식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광주의 숨은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곳이다. 특히 넓게 펼쳐진 호수 경관과 다양한 동식물 군락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은 평동호수의 가장 빛나는 자산이다. 철새들의 낙원, 낚시꾼들의 성지로도 유명하다. 광주시 지정 기념물인 평화동 장교분, 목화 주산지였던 평화마을, 영산강유역 최초 수리조합인

'평동수리조합' 등 호수 주변을 둘러싼 역사와 문화 이야기도 풍부하다. 평동 주민자치회가 실시한 마을조사에서도 '개천이나 정비돼야 할 과제'가 가장 많은 주민이 선택한 곳이 평동호수였다. 주민들은 이전부터 호수 주변에 꽃을 심거나 정기적으로 환경 정비를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난해 평동 주민총회에서 평동호수 활용을 위한 둘레길 조성이 1순위 마을의제로 선정됐다. 정책적인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평동호수가 지닌 가치, 가능성을 주목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광산구가 '평동호수 수변경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배경이다. 평동호수를 자연경관을 머물고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만들기 위한 '종합 로드맵' 격이다. 수변 산책로, 포토존, 인공습지 등 시설과 휴식 공간을 비롯해 평화동장교분, 지역 맛집 등 주변 자원을 연계한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누리길 조성 사업은 이를 본격화하는 첫 단추가

될 전망이다. 2026년까지 호수 주변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데크와 보행길을 조성하고, 호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주차 공간 등을 만들어 시민의 여가,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주변과 연계한 특색있는 관광코스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평동호수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나선 광산구는 최근 누리길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광산구는 지난 10월 국민회의 힘 광산갑을 당원협의회와의 '2023년 정책협의회'에서도 주요 현안·역점사업 안전에 평동호수 누리길 조성을 포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평동호수를 잘 가꾸고, 정비한다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광주에서 가장 좋은 힐링 명소가 될 것"이라며 "평동호수를 비롯해 활동강 생태길 30 조성 등 광산의 천혜 자연환경을 활용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대유위니아 정상화 총력 지원

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기관 공조 만전

광주 광산구는 "최근 대유위니아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지정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고용 안정과 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우수한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광산구는 또 대유위니아 사태로 타격받은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위한 신청 등도 받고 있다. 특히 2·3차 협력업체를 뒷받침할 연관 부서 TF를 가동하고, 기업주치의센터의 역량을 활용해 상

황 타개를 위한 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사태 해결의 핵심 관건인 정부 지원을 향한 광주시,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지역 인전자원개발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가동 중이다. 앞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대유위니아를 찾아 경영진,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해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박 구청장은 "중앙·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광주시와 협의해 다각도로 찾고 있다"며 "대유위니아 노사도 원활한 소통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등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안정적 쌀 생산·우수품질 육성 지원 최선"

박병규 광산구청장, 남산 95호 창고 방문 농업인·관계자 격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4일 분량동 공공비축미곡 수매 현장인 남산 95호 창고를 방문해 출하 농업인과 농협,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 지난 2일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2023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은 신동진, 새정무 두

가지 품종이며, 총 2079톤을 매입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연이은 태풍, 잦은 강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확의 결실을 거둔 농업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안정적인 쌀 생산 여건 조성과 우수한 품질의 쌀 생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비교 견학

대구·부산·창원 일원 방문

광산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비교견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비교 견학에는 정재봉 위원장과 김영선 부위원장장을 비롯한 국강현·윤혜영·조영임·이우형 위원, 사무국 직원 등 9명이 함께했다. 1일 차인 지난 8일에는 대구의 '달성군보건소'와 '육연지송해공원', '시민건강놀이터'를 둘러봤다. '달성군보건소'는 전국 최대규모의 생애주기별 건강체검관을 운영 중이고, '시민건강놀이터'는 전국 최초의 시민건강지원시설이다.

위원들은 두 시설이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건강관리를 위해 체험과 교육·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광산구만의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서비스에 접목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이어 매년 6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도심 속 저수지이자 지역의 관광 랜드마크 자리매김한 '육연지송해공원'을 찾아 성공 요인 등을 분석하는 시간도 가졌다. 2일 차인 9일은 '부산시민공원'과 '창원레포츠파크'를 견학했다. 정재봉 행정자치위원장은 "이번 비교견학은 광산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명품 30리길'

과 우리 의회 연구단체에서 관심 있게 연구 중인 통합돌봄 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기회였다"며 "광산구에 접목할 수 있는 묘안을 연구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의료복지와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산구자원봉사센터, 경로당·돌봄세대 찾아 빈대 방제

광산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마을관리소 활동가 30여명과 함께 관내 경로당과 돌봄세대를 대상으로 빈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 활동은 우산·도산·월곡·월계동 등 각 센터 거점인 마을관리소를 통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돌봄세대는 사전 연락을 통해 동의를 얻어 방제 활동을 진행했으며, 경로당은 마을관리소 정기 프로그램에 활용해 방제활동을 완료했다.

특히 경로당의 경우 이용이 가장 적은 시간대에 퇴치제를 살포하고, 개인가정은 살포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키는 등 안전사항을 지키며 방제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성이 광산구자원봉사센터장은 "빈대 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선제적 방제활동을 했다"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는 마을관리소 활동가들이 상시적으로 방제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